



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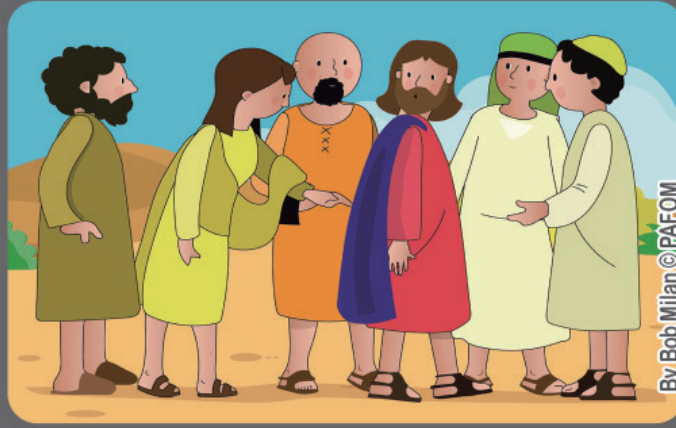
“딸아, 용기를 내어라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”
(마태오 9,22)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

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시는데, 여러 해 동안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부인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요.



그 부인은 예수님을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, 단지 뒤에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요. ‘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, 나는 나을 거야’라고 생각해요.



그 순간,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부인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. “딸아, 용기를 내어라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”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인은 건강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어요.



탄자니아의 루시아. 친구들과 마당에서 놀다가 친구 한 명이 많이 다쳤어요. 우리는 바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.



미사 후에 우리는 다 같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. 우리가 도착하자, 그 친구는 많이 아픈데도 기쁘게 우리를 맞이했어요.



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도 우리가 실천한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. 끝으로 함께 기도하고,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.